

# 否定の 모습: 상위언어적 부정은 실험상 어떻게 다른가?

이정민\* †

서울대학교

**Chungmin Lee. 2015. Faces of Negation: How is Metalinguistic Negation Experimentally Different?** *Language and Information* 19.2, 127-153. Negative expressions have their semantic function of classical negation as a pure reverser of truth-values. They also have various kin and foes of their pragmatic functions such as association of bad feelings (Russell 1948), emphasis/attenuation by negative polarity items, sarcasm, and metalinguistic negation (MN). This paper explores how MN and descriptive negation (DN) differ and whether the difference creates pragmatic ambiguity (Horn 1987) or reflects merely contextual variations of one logical negation (Carston 1996).

To test the debate, this paper treats certain degree modifiers licensed exclusively by MN as in *Mia-ka POTHONG/Yekan yeppu-n key an-i-a* [external neg] (vs. modifier NPIs like *cenhye* 'at all', licensed only by DN) and contrasts them with bad utterances of the MN modifiers in [short form neg] sentences (not for MN) such as *\*Mia-ka POTHONG an yeppu-e*. The ERP results of the well-formed vs. ill-formed conditions evoked the N400 at Cz in written stimuli and the N400 near the center on both hemispheres in spoken stimuli.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nomalies are meaning-related and tend to support the pragmatic ambigu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metalinguistic negation, classical/descriptive negation, pragmatic ambiguity, contextualism, short/long form negation, ERP, N400.

---

\* 이 논문은 학술원 제42회 국제학술대회 언어와 뇌/마음 발표 논문 '상위언어적 부정과 記述의 否定'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서, 초기 초고에 대한 Horn, Israel 교수의 논평에, Clifton, 노은주 교수의 질문과 논평에도 감사한다. 실험 1과 실험 2 초기 ERP에 대해 이성은교수, E-Prime 음성 자료 짜넣기에 대해 고성룡교수의 도움에 힘입었고 ANOVA 처리에 대해 전종섭교수의 도움을 받고 그 밖의 심리언어학자들의 조언도 받았다. 초고 실험에 관한 2014년 언어정보학회 [의미와 인지] 워크숍 발표에 대한 홍우평 교수의 실험논평에도 또 본지의 심사자분들께도 감사한다. 남아 있는 모든 미진한 점은 필자의 책임이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명예교수동 150동 308호 29.  
E-mail: clee@snu.ac.kr

## 1. 들어가기: 부정의 여러 모습

### 1.1 진리치 바꾸기로 충분한가

부정 표현은 명제의 진리치를 바꾸는 서양의 고전적 부정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므로 예컨대 이중 부정( $\neg\neg p$ )은 다음 (1)에서와 같이 긍정의 효과를 나타내나 나아가 실제발화에서 약화된 긍정으로서 대개 대조 화제 표지를 동반하며 척도상의 함축을 자아냄에 주의해야 한다.

(1)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냐

부정은 또한 많은 벗과 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나 ‘anyone’ 같은 부정 극어(NPI)는 부정을 필요로 하는 벗이기 때문에 부정이 없이는 (2)와 같이 비분법적이다.

(2) \*아무도 왔다.

부정은 그 긍정 부분이 세상 외부 상태와 맞지 않을 때 거짓이 되고, ‘p와  $\neg p$ 가 동시에 참이다’에서와 같이 모순을 자아내고, 화자의 느낌과 반대되는 부정적 내용이면서 긍정 표현을 쓰는 반어법(I love waiting forever for my doctor)과 비꼬기를 대화에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반어법/비꼬기의 자동 탐색기도 개발되고 있다(Forslid 외 2015). 또 우리가 다루려는 MN이 있고, 진리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허사 부정이 있다.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지 못하고 화용론적으로 긍정으로의 편중(bias)을 자아낸다. 허사 부정은 영어에 없고, 한국어, 일본어 및 로맨스어에 있다.

(3) a. 실수하지 않을까 두렵다.

b. ‘I fear that I will [\*not] make a mistake.’(Choi and Lee in press)

부정은 또한 서로 상극이라 할 수 있어 긍정문에만 나타나는 someone, ‘누군가’와 같은 긍정 극어(PPI)와 관계된다(Lee in Prep).<sup>1</sup> 또 부정이 상위문의 비사실성 think, believe에 올라가 붙는 부정-귀소과도 관계된다. 범언어적으로 영어, 일본어 모두 think, believe 동사에만 이 현상이 일어나나 한국어에서만은 사실성 전제가 없는 형태의 ‘알다’에서도 일어남이 밝혀졌고(Lee 1978) 최근 이를 실험으로 뒷받침했다(Lee and Hong 2016). 인상된 (4a)의 부정은 의미상 (4b)의 보문 부정을 나타낸다.

(4) a. Sue-는 친구-가 죽은 것-으로/줄-로 알고 있지 않다.

b. Sue-는 친구-가 죽지 않은 것-으로/줄-로 알고 있다.

<sup>1</sup> MN의 영향권(scope) 안에서는 유지된다. ‘I didn’t eat vsome apples - (#but) I devoured them. (Horn 1989)

한편 부정은 나쁜 감정과의 연관을 나타내는((Russell 1948) 등의 표현적, 직관주의적, 또는 화용론적 부정성이 의미론/화용론 및 감정 분석의 자연언어 전산처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정에서 출발하지 않은 표현이 '나쁜' 감정과의 연관을 갖는 예도 생긴다. (5)에서 '모조리'(all)는 대상(Theme 또는 Patient) 역할에 나쁜 영향을 미침을 상례적으로 함축한다(conventional implicature). 이 의미는 진리조건적이지 못하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변이적이어서 상항적(常項的, constant)이지 않은 화용론적 의미를 갖는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전칭양화사가 이런 감정/표현적 의미가 덧붙는 예가 없다.

(5) 적군을 **모조리** 죽였다 (Cf. ??---**모조리** 살렸다)<sup>2</sup>

부정은 인간의 소통 체계 특유의 자질로서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오늘날까지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더 일찍부터도 인도의 논리학자 Sanjaya (<6th century B.C.)에게는 부정은 4각의 부정을 모두 부정했다. 즉 존재-비존재, 존재와 비존재 양쪽, 또 존재도 비존재도 아님을 다 거부해, 모순법칙(Law of Contradiction)과 배중률(Law of Excluded Middle)로부터 벗어나려 했다(Raju 1954). 이는 '회피적,' '불가지론적' 또는 '변증법적 실존주의'라는 평을 받아 왔다.<sup>3</sup> 수로서의 영이라는 수학적 개념도 인도에서 맨 먼저 나와 산스크리트의 단어 śūnya 'void'가 BC 3/2 세기 때 영을 가리켰고 나누기를 포함한 실제 산술이 AD 9세기 때부터 이미 영을 써서 이루어졌다. 영어에서의 영의 다른 이름 nought(고대 영어 ne-ō-wiht'not a thing,'비존재)도 부정과 관련 있으나, 훨씬 뒤 14, 15세기 무렵에 발달한 minus(Latin의 'less')가 plus('more'; positive)와 대립돼 분명히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훨씬 이전 4천년 전 고대 중국에서의 우주적인 陰(Yin the negative)과 陽(Yang the positive)의 대립원리가 '어둠' 대 '밝음,' '지구' 대 '하늘,' '여성' 대 '남성,' '부드러움' 대 '딱딱함' 등에 광범하게 적용됐고, 이러한 대립은 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지적으로 증명됐다(Osgood et al 1973).

일상적 대화에서처럼 보편적 범주로서의 문장/명제적 부정에 관심이 쏠렸으며, 연구 역사 전체를 통해 부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는 긍정과 부정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부정은 '넷은 짝수다'대 '넷은 짝수가 아니다'에서처럼 모순되는 명제들을 일대 일로 중개한다고 보는 것이 대칭주의자들의 입장이었고 이들은 긍정과 부정이 대칭적이라 보았다. 그러나 white-black, good-bad, love-hate, hot-cold, easy-difficult와 같은 합리적인 짝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반대 부정(contrary negation)을 낳는 반대 대립(contrary opposition)의 관계도 있다. 반대 명제들은 모순명제들처럼 동시에 참일 수 있으나 모순명제들과 달리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들은 She is neither rich nor poor.에서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범위를 허용한다. 비대칭성(asymmetry) 이론을 옹호하는 다음과 같은 대결 전선의 목록을 내놓는다.

(6) 긍정은 논리적으로/존재론적으로/인식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우선하며 기본적

<sup>2</sup> '모조리 망했다'처럼 '모조리'가 주어와 연관되면 이는 비대격 구문이며, 아니면 부자연스러워진다.

<sup>3</sup> 불교의 깨달음(enlightenment)과 연관되나, 인지과학/철학에서의 의식(consciousness)논의와도 연관된다.

이고 필수적/객관적인 데 반해 부정은 모조리 이의 반대이고, 긍정문은 사실을 기술하나 부정문은 단지 긍정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며 외연에 무한한 변이가 가능해 사실상의 계산이 불가능하다(Givon 1978과 Horn 1989을 변경). Israel (2004)은 여기에 선 대 약의 도덕적 차이를 덧붙인다.

부정과 그와 연관된 벗과 적에 대한 비대칭주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기능이나 의미의 비대칭은 그 형식의 비대칭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유표성(markedness)이라는 넓은 개념이 동원된다. Greenberg(1966)는 세계 언어를 훑어보고, 긍정은 대개 영의 형식을 갖는 데 반해 부정은 드러나는 표현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정은 형식에서만 비대칭적인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처리(processing)상 비대칭적이라는 점이 문장 참 검증(Wason 1961, Carpenter and Just 1975), 기억 회상(Cornish and Wason 1970) 및 논리적 사유(Evans, Clibbens and Rood 1996) 등의 여러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부가적인 긍정 짝이나 관련성 있는 담화상의 쟁점 질문(QUD)이 처리된다는 주장이다(Tien and Breheny 2016, a la Roberts 2016). 논리-의미론 분야와 달리 심리언어학적 처리 분야에서는 대칭성 입장의 옹호는 없어 보인다.

## 1.2 탐구 목표

2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MN) 대 記述의 부정(DN)의 구별을 설명하면서 MN이 DN에 비해 더유표적임을 밝힌다. *Ken is not not smart; he is dumb*에서 첫 not가 논리적/기술적으로 읽혀 이 중부정이 된다면 후행 해명 절과 합쳐 모순이 일어난다. MN은 후행 해명 절 앞에 but가 앞설 수 없고 MN 절에 특별한 유표적인 운율이 없힌다. MN에 대한 각기 다른 이론적 입장 즉 의미론적 중의성 입장과 의미론적 단일성 입장을 구별하고, 같은 단일성 입장내의 화용론적 중의성 주장과 연관성 이론의 신단일성 주장의 차이를 논한다.

3에서는 MN 부사류의 운율적 유표성을 먼저 영어와 한국어에서 제시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 즉 상례적(conventional)으로 됨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MN절만으로도 후행 해명절 없이도 전달되는 함축 의미가 분명함을 보인다. 뒤이어, 4에서는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 부사류의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이 뇌파 실험으로 나타난 N400 효과는 MN이 허가하는 정도 부사류가 단형 부정문에 들어 가 일어나는 비적형성이 통사상의 비적형성도 아니고,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 다소 막연한 맥락주의보다 화용론적 중의성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 2. 상위언어적 부정의 양상

### 2.1 상위언어적 부정 대 記述의 부정

Geurts(1998)는 記述의 否定の 단언과 구별되는 네 부류의 부인(denial)이 있고, 이것들이 이른바 상위언어적 부정에 속하는 것으로 내세우면서 각각이 다른 基底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우선 Geurts의 '명제적'부인의 예를 보면 그것이 否定的 단언과 별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된다(부정국어 'at all'의 수의적 삽인은 필자의 것).

- (7) A: Sue is happy.  
 B: No, she is not happy (at all) (as a reaction to A).  
 cf. 'negative assertion' Sue is not happy/unhappy.

그러나 Geurts의 '명제'부인은 DN과 같이 나타나는 부정극어(NPI) 'at all'과 같이 나타나며 이는 MN의 주요 기준을 여기는 결과다. B는 A의 언명이 진리치에 있어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MN은 이와 같이 제한된 의미로 '명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MN은 아니라 명제를 표현하는 발화의 어떤 측면을 거부하는 것이다. (7B)는 단순한 여부 의문문 'Is she happy?'나 서술적 의문문 'He is happy?'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또는 연관성 있는 목시적인 쟁점 질문(QUD)이 선행할 수도 있다. MN 뒤에는 수정적인 대안의 해명절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따라야 한다. 이러한 MN 맥락에는 대조 초점(CF)을 지닌 스스로 묻는 강한 선택 의문문(AltQ)이 요구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Lee 2003). 7B의 부정사 not은 부정극어 at all만 없으면 접두어 un-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것도 MN 자격조건에 어긋난다. 따라서, '명제'부인은 Geurts의 체계에서는 부합되더라도 이 논문의 MN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부정극어(NPI)는 MN에 의해 허가되는 요소들과 확연히 구별되나 두 가지 다 부정에 의해 허가되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는 논의가 많은 가운데, 지금까지 부정극어(NPI) 논항과 수식어에 관해 연구가 집중되어 왔으며 MN과의 구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부정극어는 DN에 의해 허가된다. DN은 긍정 논항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즉 그것의 사실 또는 세상의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논리적 기능을 갖는다. 부정극어들은 명제내용이 거짓임을 강화해주므로 일반적으로 강조적이다(Potts 2010, Israel 2004). 범언어적으로나 통시적으로 부정 극어는 'even'이 붙은 최소화소에서 발전했다(Lee 1993, Y. Lee and Horn 1994, Lee 1999, Lee 2010 a.o.). (8)에 부정극어 논항, (9)에 부정극어 수식어가 동아 3개국어로 예시되었다. (8)에서는 논항이 양화적으로 전무함을 강조하고, (9)의 부사적 수식어는 부정문을 記述의으로 강화한다.

- (8) a. 아무-도 오-지 않-았-다(Kor)  
        $\neg \exists x$  (x: person'(x)) [came (x)]  
 b. dare-mo ko-nakat-ta =a. (Jpn)  
 c. shwei-ye mei-you lai =a. (Chn)  
 (9) a. 테이블-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 (Kor)  
        $\neg \exists x$  (x: way'(x)) [move'(t)(in x)]  
 b. teeburu wa mattaku ugoka-nai =a. (Jpn)  
 c. zhuo-zi gen-ben budong =a. (Chn)

그러면 이들 부정 극어와 구별되는 MN에 관한 여러 이론적 입장을 보기 앞서,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MN 예들로 옮겨 가 보자. 먼저, (10), (11)과 같이, 형식/언표의 MN 예들을 살펴보자. (10)에서 화자는 police라는 단어에서 앞선 화자가 발음한 잘못된 강세 위치에 대해 MN 취지의 not로 반대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대로 된 강세 위치를 후행절에서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11)에서 앞선 화자에 의한 주어 경어법 위배를 현 화자가 MN으로

배격하며 후행절에서 올바른 경어형으로 바뀌 시정한다. (11)에서 보듯이, 한국어에는 주된 부정 형식이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계사형 부정(copula negation)을 더하면 네 가지가 된다. 먼저 세 가지는 (a) 외부 부정으로서 MN이 가장 선호하며 부정+계사를 갖는 일종의 분열 구문, (b) 장형 부정 -동사+지 않-의 형태, (c) 단형 부정 -동사 앞에 부정소 안만 놓이는 구문으로서 전형적으로 DN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 네 번째로 MN을 수용하는 '부정+계사'의 구문이 있다(뒤에서 추가 논의). 이는 긍정 계사와 달리 분열 구문이라고 필자는 보며 따라서 MN을 허가함을 보인다.

- (10) (Mary called the POLice.)  
 Mary did not call the POLice; she called the poLICE.
- (11) (할머니-가 죽-었-어)  
 a. 할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가-시-었-다(외부 부정)  
 b. ??할머니-가 죽-지 않-고 돌아가-시-었-다(장형 부정)  
 c. \*할머니-가 안 죽고 돌아가-시-었-다(단형 부정)  
 (Subject Honorification)

위 (11a)의 두 번째 연결지에서 주어 DP마저 경어 표지를 달고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경우 MN절 전체가 MN의 영향권 안에 들고, 후행 시정절도 주어-동사 일치의 절 전체가 시정되게 마련이다(경어에 대한 ERP 실험 예는 나중에 보기로 한다).

다음은 척도상의 함축을 부인하는 MN이다. 이는 (12)에서 보듯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예들이다. (12A)의 발화는 보통 (13a)와 같이 척도상의 함축을 남겨나 양보적인 But으로 시작되는 명시적인 척도상의 단언이 나온다(부정이라서 더 약한 긍정의 함축/단언이 나온다 (13b)에서 더 분명하다). 이는 DN의 대조 화제(CT) 해석이다. 이에 반해 (12B)의 부정은 DN해석으로 나오는 그러한 척도상의 함축을 억압하고 오히려 척도상의 윗 값을 내놓아 시정하는 MN의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not happy'의 DN해석은 '슬프다'가 돼 뒷 것과 모순을 낳는다. 따라서 MN의 특별한 기능을 화용론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12) A: Sue is happy that he' gone.  
 B: Sue is NOT HAPPY that he's gone; she is ELATED.
- (13) a. Sue is not happy that he's gone. But she is carefree.  
 b. Sue is not elated that he's gone. But she is happy.

MN은 담화의 응집성(coherence)을 위해 是正의 S/N (sino/sondern) 'but'과 긴밀히 연결되고 (14 a, b, c)에서 보듯이 P/A (pero/aber) 'but'과는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영어나 불어에서는 절 층위의 S/N (sino/sondern) 'but'는 없어 억양과 커마(,)나 세미콜론(; )으로 후행 시정절을 잇는다((14c) 및 위 (12B) 참조).

- (14) a. Das ist nicht wahrscheinlich, {sondern/\*aber } das ist sicher.  
 b. No es probable, {sino/\*pero } es cierto.  
 c. #It'not probable, but it's certain (Horn 1987)

이와 같은 두 가지 **but**의 대립은 유럽의 연구전통(Ducrot 1972)에 입각한 Horn에 의해 MN진단법으로 중요하게 동원된다.<sup>4</sup>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 이론의 논의는 별로 없으나, 나중에 언급한다. 한국어에서는 ‘하지만’(가끔 ‘-는데’)이 영어의 양보적 **but**과 가깝고 이는 P/A (pero/aber) ‘**but**’과 같으며, 필자의 제의에서 **But** 뒤에 상례적(고정적)인 척도상의 함축 절을 낳는 대조 화제(CT)에서 쓰일 수 있고, MN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전제 부인의 MN이 논의된다. 연구자들은 (15)에서 (17)까지의 예들도 MN에 곧잘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다르다. (15)에서 (17)까지의 예의 한국어 짝들인 (15')에서 (17')까지의 예는 한국어 화자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입된 전제들이, 특히 ‘것’대격의 보문소 사실성으로 인해((15' 참조), 참으로 강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며 이는 뒤의 해명 절에 의해 쉽게 반박되지 않는다. 행어 받아들여진다면, 심한 말장난이나 속임수로 여겨진다. (16')의 경우, 화제 표지 ‘-는’의 강한 지시적 전제로 인해 MN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존재의 부정은 존재동사를 논평 술어로 해 직접 부정해야 한다. (17)의 한국어 짝인 (17')은 상적인 전제를 가진 예로서, MN에 가장 우호적인 **외부 부정**(17')과는 MN에 어느 정도 가깝게 성립이 되고, **장형부정**(17')과는 그만 못 하고, **단형부정**(17')과는 MN이 성립되지 않는 정도 차이를 보인다. 즉 통사론상의 문장 형태에 따른 부정의 형태가 MN과의 우호성에 뚜렷한 차이를 낸다. 여기서 MN에 **외부 부정**이 매우 우호적이고 단형부정이 가장 비우호적이라는 일반화는 Carston and Noh(1996)의 반대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15) Sue doesn't regret that she married a foreigner; she never married a foreigner.

(16)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there is no king of France.

(17) (Tom stopped smoking.)

Tom didn't stop smoking; he never did smoke.

(15') ??Sue-는 외국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외국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16') ??프랑스왕은 대머리가 아니야. 프랑스왕이 없으니까.<sup>5</sup>

(17') a. ?그이는 담배를 끊은 게 아니야. 피운 적이 없어. (외부 부정)

b. ?\*그이는 담배를 끊지 않았어. 피운 적이 없어. (장형 부정)

c. \*그이는 담배를 안 끊었어. 피운 적이 없어. (단형 부정)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대체로 MN(그 밖의 외부 부정 유형들을 포함해)과 DN이 어휘적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 특이하나, 놀랍게도 전제 취소의 경우 MN 단어 **bukan** 이 DN 단어 **tidak**보다 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Kroeger 2014).<sup>6</sup> 다른 MN의 경우에는 언제나 **bukan**이 쓰인다. 전제 취소의 MN은 다른 MN들과 적어도 일부 언어에서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제 취소의 MN이 성립되지 않으나, (17'a)에서 이미

<sup>4</sup> Tobler (1896) (German) started and Melander (1916) continued. (Horn 1989)

<sup>5</sup> ‘-는’화제의 강한 존재전제에 또 초점이 가는 계사부정일 때 이처럼 더 나쁘고, ‘?프랑스왕은 방문하지 않았다. 프랑스왕이 없으니까’는 심사자 지적처럼 많이 좋아진다.

<sup>6</sup> Dia tidak/??bukan berhenti merokok, --- ‘He has not stopped smoking, because in fact he has never smoked.’

본 바와 같이 상적(aspectual) 전제의 취소가 MN 선호의 외부 부정과 만나면 상당히 나은 MN을 이룬다.

## 2.2 두 개의 부정인가 한 개의 부정인가, MN에 관한 다른 입장들

MN과 DN의 구별되는 기능에 대해, Russell(1905)과 Karttunen and Peters(1979)는 의미론적인 중의성을 지지한다. 위 (16)에 대해, Russell은 아래 (19)처럼, 술어에 적용되는 내부 부정( $\neg \sim Bx$ )와 과 구별되는 외부 부정을 설정했다. Russell은 한정 기술에 대해 존재 전제가 아닌 존재 함의를 인정했으므로 의미상 두 다른 부정을 설정하는 셈이고 이는 의미론적인 중의성 입장이 된다. 한편, *neither true not false*의 의미론적 전제 입장(van Fraassen 1966, Keenan 1971)을 취한 경우도 의미론적인 중의성을 취한 것이 된다.

$$(19) \neg \exists x (Kx \ \& \ \forall y [Ky \rightarrow y = x] \ \& \ Bx)$$

그러나 많은 언어학자(Gazdar 1979)와 논리학자들은 의미론적인 중의성 주장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방어되기 어려운 입장이고, DN에 속하는 강조적이고 유표적인 다양한 부정극어 /n-word가 존재함에도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두 부정사를 쓰는 언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됐다('MN 단어' bukan은 더 조사 필요). MN은 특별한 유표적 억양과 적절한 뒤따르기 절이 요구된다. (20)에서처럼 여기에는 MANAGE에 덧붙는 상례적 함축(CI)이 없어야 한다.

$$(20) \text{John didn't MANAGE to solve some/*any problems --- they were quite easy to do./he was given the answers. (Karttunen \& Peters = KP 1979)}$$

KP는 의미론적 영향권 중의성을 제외하나 어느 연결지가 부정돼야 할지(CI or solved)가 분명치 않아 성립되기 힘들다. 영어에서도 *It is not the case/true ---* 같은 외부 부정 표현은 *It is not the case that everyone came (with a weak positive scalar implicature but some(one) came)*에서처럼 양보적으로(필자에게는 CT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MN의 경우는 *It is not correct---*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orn(1985, 1989)은 하나의 의미론적 부정을 인정하는 의미론적 단일성 주창자(semantic monogust)이나, DN에 대립되는 모든 유표적인 화용론적인 MN기능을 따로 둔다. 이는 앞선 담화에서의 인용적인 부분에 반대한다('object to'는 운용소에 해당한다. Horn은 스스로 화용론적 중의성 주창자로 자처한다. Horn의 입장은 (21a)나 *---we don't like coffee, we love it*에서처럼 MN 발화에서 약한 척도 술어(여기서 *happy*나 *like*)에 함축된 상한(implicated upper bound)(여기서 *ecstatic*나 *love*)이 없다는 점(즉 척도 상위 값을 부인하는 척도상의 함축을 취소하는 점)에 기초하며 이는 화용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명제의 참을 부정하기보다 발화나 언명의 단언가능성(assertability)이나 적절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Horn의 화용론적 중의성 이론은 맥락주도적인/연관성 이론의 Sperber and Wilson(1986)이나 Carston (1988, 1998)의 주장과 유사하면서도 대조된다. 이들은 화용론적인 '중의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재미있게도 Wilson(1975)의 입장을 가리켜 Horn은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Wilson도 아래 (21a)와 같은 예를 다루면서 not-p는 p가 적절치 않다고 단언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Wilson과 Carston도 부정 단일성 주장자다. 이들은 다만 화용론적 차원에서조차 중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어도 아래 (21a)를 포함한 '역설적인' MN 예들은 '메아리적'이고 '상위표상적'(metarepresentational)이라고 말한다. Horn도 이들이 '인용적'임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아래 (21a)의 not happy가 unhappy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겠다. Horn도 Carston의 '메아리 용법'이 부정의 발화에만 쓰이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Horn처럼 Carston도 NPI와 PPI를 구별하고 특히 후자를 아래 (22B2)에서와 같이 MN 탐지에 이용한다. 맥락주도 입장 주장자들은 MN용법의 효과는 Wilson이 반어(irony)를 정의하는 데 쓴 'dissociative attitude'('거리두기'로 회의, 조소, 거부의 느낌을 포함)라고 한다. Horn의 'opposing'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보다 심리적이다.

NPI와 PPI를 염두에 두고 아래 (22)의 대화를 보자. A의 '--sometimes late.'에 대해 B1은 DN에 기초해 NPI가 쓰인 데 반해 B2의 PPI sometimes의 사용은 메아리 또는 전의 언급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후속절이 결과적으로는 발화 U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에 발화의 진리함수적 내용조차 끼어들어갈 여지가 생겨 Horn의 "on any grounds whatever"에 합치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표현에 대한 반박으로 쓰인 아래 (21b)도 (Horn에게는)MN이다. B2 발화에서 MN의 영향권은 'sometimes late' 전체임에 틀림없고 이는 시정절의 'always punctual (=not late)'과 대조되고 그것이 앞 절의 MN 대상을 시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제안대로 직접 연관된 QUD를 동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 의문(AltQ)이 될 것이다: Is she sometimes late (as you say) or always punctual (as I retort)? 그러므로, MN의 영향권이 크게 문제가 됨을 유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아래 (23)과 같이 예외적으로 NPI를 지닌 MN도 고안하고 해결할 수 있다. B3(필자의 추가)의 MN이 PPI 'sometimes'를 별도로 목표로 삼아 척도함축을 여기는 'always'로 대립시켜 시정하는 흔한 예가 된다. B4(필자의 추가)의 부정은 NPI와 함께 DN으로 읽혀 모순이 일어난다.

- (21) a. I'm not happy; I'm ecstatic.  
 b. I'm not happy; I'm miserable.
- (22) A: Mary is sometimes late.  
 B1: She isn't ever late; she is always punctual. DN  
 B2: She isn't sometimes late; she is always punctual. MN  
 B3: She isn't sometimes late; she is always late. MN  
 B4: \*She isn't ever late; she is always late. DN contradiction
- (23) This car isn't (pretty) old car at all; it is antique. (Seuren 1990)

DN 식으로 보아서는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만 MN에 넣는 즉 진리치 기준을 갖는 Burton-Roberts(1989)와 같은 입장에서는 위 (21b)가 MN이 아닐 수 있지만, 위 (22B2)와 같은 예 앞에서는 (22B1)과 진리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은 DN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화자의 메아리 내지 거부의 비중이 더 크므로 MN으로 기울어야 할지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Burton-Roberts는 전체 취소의 경우도 전체가 의미론적이라는 이유로 자신

의 MN 범주에서 제외시킨다. Carston은 전제 취소가 의미론적이라는 그의 입장은 의미론적 중의성에 빠지게 한다고 반대하지만, 연관성 이론자들도 전제 취소의 예들을 MN에 넣는 데 주저한다. 전제 취소의 경우 쉽게 ‘메아리적’이라 하기 힘들 것이다. 전제 취소의 예들 대부분이 왜 한국어 구조에 잘 안 맞는지 그 이유를 필자가 이미 밝혔다(그리고, 인도네시아어에서는 bukan이라는 단어가 MN에 쓰임에도 극적으로 전제 취소의 예에서는 DN 단어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두 가지의 but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시정의 correction-but (or corrective S/N(sino/sondern) ‘but’와 양보적인 P/A (pero/aber) ‘but’의 대립적인 사용에 있어 영어에서는 시정의 correction-but 사용이 통사론상 매우 제한적이다(Horn 1989, Lee 2010, 위 (21) 참조). 아래 (24)를 보자. Carston(2002)도 이 but의 구별을 인정한다. 다만 Bardzokas (2015)는 ‘correction-but’에 대한 연관성 이론의 견해를 뒤흔드는 문제들을 파헤치고 상위표상적 but를 위한 규제된 제거 절차를 제안한다. 이 절차는 Carston이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정원길 미로(graden-pathing)와 같다.<sup>7</sup>

(24) a. She is not happy but ecstatic.

b. \*She is not happy. But she is ecstatic. (\*She is not happy but she is ecstatic.)

전반적으로, 맥락주도 주창자(=연관성 이론가)들은 척도함축을 포함한 모든 쟁점들이 예컨대 관련된 척도 어휘들에 대한 맥락상의 처리를 통해 화용론적 확충(pragmatic enrichment)으로 해결된다고 보며, 따라서 Horn의 ‘화용론적 중의성’은 실질적으로 의미론적 중의성에 해당한다면서 반대한다. 이 양론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이 토론은 시간이 가면서 진화하는 양상이다. Carston and Noh(2014)는 잠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국어 예를 (25)와 같이 주고 있다(한국어 전사 필자). 아쉽게도 한국어에 관해 분명히 (예컨대 CT 표지 ‘-는’에 대한) 오도된 주장과 잘못된 상위표상적 예들에 지면을 쏟고 있다. CT ‘-는’은 양보적인 P/A ‘but’ (우리말 ‘하지만’)과 이어지면서 DN과 어울리므로 MN과 부합되지 않아 CT ‘-는’을 마치 MN 요건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비판해 마땅하나, 그 중의 특수한 목록(list) CT ‘-는’을 예외적인 발생 있는 MN으로 내세운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25) 참조). 그럼에도 이들은 더 많은 연구와 사례 깊은 사고가 요구된다고 건설적으로 말하고 있고 특히 이 쟁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화들[전행적인 MN 예들]에 대한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어떤 실험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MN/메아리 발화의 부정 부분 앞에 ‘not’라는 논리적 연산자/운용소를 두고, 이 발화에 시정(correction) 함축을 설정해 덧붙이는 방안을 제시하나, 잠정적이고 현재로서는 Horn의 OPPOSE TO라는 화용론적 운용소와 확연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시정은 명시적으로 단언될 경우가 더 많으므로 함축과 단언 간의 관계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의문(AltQ)과 그에 대한 대답에서는 대립되는 둘(이상)의 항목이 대조 초점을 받고 한국어에서 격조사가 나타나게 마련이나, 이 대립 항목들이 특이하게 목록 대조화제(list CT, see Lee 2000)를 이룰 때는 더 이상의 상위 값을 부정하는 척도상의 함축이 나오지 못하고 대체항이 소진되는 상황이 되고 (25)와 같이 ‘-는’이 가능하다.

<sup>7</sup> 해석해 나아가면서 끝난 줄 알았다가 그 뒤 이어져 되돌아가 재해석해야 하는 구문이 정원 길이다.

(25) 술-은 안 마시-고 곡차-만 마시-니니-다.

'(We) do not drink rice wine, we drink rice tea'

주위의 12명 남짓에게 이메일로 또는 직접 (25)가 '자연스러운지' 그렇다면 '술'과 '곡차'가 같은 것(또는 종류)을 지시하는지 물어보았다. 10명은 자연스럽고 그 경우 다른 것을 가리킨다고 답하면서 두 가지가 다른 것을 가리킨다면 모순이 꽤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곡차'가 (승려 계층에서) 술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임(국어사전에 일반적 의미로 곡식으로 만든 차와 한정된 특수 의미로 불교승려층의 '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등재됨)을 아는 두 사람은 '말장난' 또는 '자기 방어'의 뜻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고, 두 대립 항목이 같은 '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미리 몰라), 어색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겠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단형 부정 '안'을 記述的으로 쓰는 강한 경향이 있으며 같은 것을 가리키는 모순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소수지만 그래도 이를 비적형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대화 격률에 대한 발화자의 노골적인 이용 또는 위배를 이해해 동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두 단어가 같은 것을 가리킬 수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모두가 다음 외부 부정의 문장이 대격에 CF가 얹혀 제시되면 MN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고 답한다.

그러므로, 목록 대조화제로 대립항을 이루면서 모순적이어서 달리 해석이 안 되는 예외적 맥락에서만 단형부정으로 심한 말장난투의 MN이 개인에 따라 성립되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MN이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정이 DN으로 남으면 모순이 되므로 하나의 부정이라 하더라도 MN의 화용론적 의미를 취해야 가까스로 모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남는다.

### 3. 운율적 실험 연구의 시사점

#### 3.1 상위언어적 부정에 의해 허가되는 정도 부사의 운율적 유표성-영어의 경우

이 논문은 MN에 의해 허가되는 정도 수식어를 탐구하고자 하며, DN에 의해 허가되는 것들과 비교하고 어떻게 MN 허가가 DN 허가보다 운율상 더 유표적인지를 먼저 보이고자 한다. MN 용법과 NPI 용법과 그에 따른 (26)과 (27)의 운율적 특징의 기본적인 구별을 Bolinger(1972)가 당시 MN의 개념이 없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잘 기술했다. 이에 필자는 Ohio 원어민 화자들을 피험자로 써서 발음을 녹음해 간단히 분석했으며, 억양 패턴에 현격한 구별이 있는 것을 생생히 볼 수 있다. Fig 1에서 보듯이, MN에 의해 허가되는 정도 수식어인 (26)의 A LITTLE은 높은 pitch 254Hz의 상승 꼭대기점(peak)을 이루며 그 직전에 MN not가 또 하나의 상승 꼭대기를 이루며, MN 부정과 MN 부사가 차례로 이중적 상승 엑스트 꼭대기점을 이룸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7)과 같은 DN에 의해 허가되는 NPI와 같은 최소화소(minimizer)들과 대조된다. Fig 2에서 보듯이 훨씬 낮은 211.7Hz의 최소화소 a bit/a little(even이 붙은 의미)의 !H downstep과 그에 앞서는 high H\* not가 나타나 운율상 크게 대조적이다.<sup>8</sup>

- (26) She is NOT A LITTLE upset. (She is VERY upset.)
- (27) She is NOT a little/a bit upset. [even a little] (She is not upset at all, is quite composed.) 여기에 Bolinger(1972) 예문을 최소한으로 바꿔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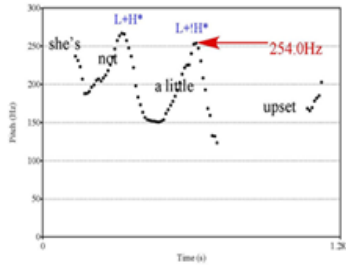


Fig 1. a-little-MN: **not**과 **a little**에 걸쳐 이중으로 올라 가는 엑스트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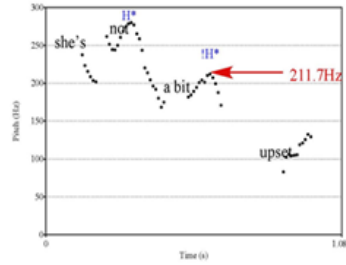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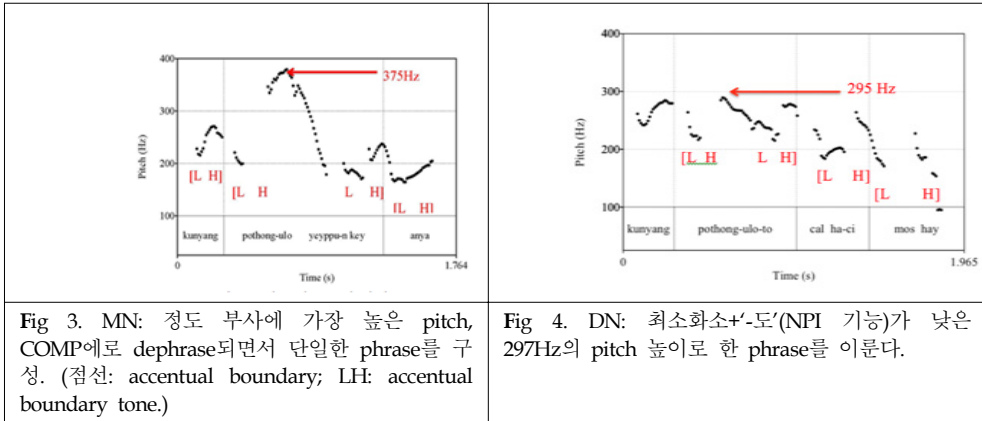
Fig 2. a-bit-DN: **not**에 오르막이 없는 H\*, **a bit**은 !H\* downstep

영어에서 의미상 약한 수식어인 *a little/a bit*이 운율상 **not**과 **a little**에서 이중으로 올라가는 꼭대기점들을 이루면 MN 허가를 받아 척도 <*a little/a bit, very*>에서 상위의 *very*를 부인하는 척도상의 함축을 낳지 않고 반대로 *very*를 긍정하는 함축을 낳거나 표현하게 된다. 이와 달리 *a little/a bit*이 운율상 pitch가 더 낮고 앞의 **not**가 상승 없는 H\*를 이루면 *even a little/a bit* 의미의 NPI 역할을 하면서 DN 허가를 받는 수식어가 되어 전적으로 부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운율상의 패턴에 따라 이처럼 모종의 의미를 달리하는 것은 운율 패턴이 상례화(conventionalized)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3.2 상위언어적 부정에 의해 허가되는 정도 부사의 운율적 유표성-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MN에 의해 허가되는 정도부사 ‘보통’(commonly)이 375Hz의 높은 pitch로 나타나나 DN의 허가로 NPI로 기능하는 같은 형태의 ‘보통’(으로)-도(예: ‘--보통-으로-도 잘못해’에서와 같이)는 낮은 pitch 295Hz로 나타나 역시 크게 대조된다(Lee 2016). 즉 MN 부사류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운율상 유표적이다.

8 강운정교수가 영어 MN에 이중으로 상승하는 꼭대기점이 있음을 주목해주고, 윤지원교수가 한국어 MN도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지 않나 암시했다. 영어의 원어민 녹음과 Praat 분석은 Jeff Holliday 교수가 도왔다.



한편 한국어에서 긍정문에 나타나는 ‘보통(으로)’는 MN 허가의 경우보다는 훨씬 낮으나 재미있게도 Fig 4의 DN 허가의 NPI 때보다는 pitch가 높게 나온다. 이것은 긍정 수식어가 수식받는 술어의 의미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점이 간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대조 초점(CF)이 개입하는 MN보다는 많이 낮게 나온다. DN 허가의 NPI도 원래는 부정의 강조로 쓰이나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외에는 차츰 의미 표백(semantic bleaching)으로 ‘-도’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통(으로)-도’에 ‘-도’가 붙어 NPI가 되는 것은 ‘보통(으로)’가 척도상 약한 정도로 간주됨을 의미하고 ‘-도’가 양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MN도 NPI도 아닌 중립적인 ‘보통(으로)’의 운율 특징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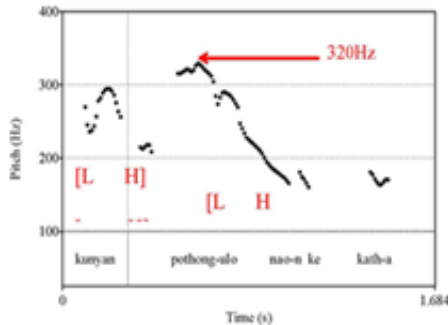


Fig 5. 긍정문: 긍정 수식어 ‘보통으로’는 320Hz의 초점을 보이나 Fig 3의 MN CF보다 훨씬 낮다.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MN이 유효적인 운율적 패턴 단위를 구성함을 보았고 이는 DN 해석을 배척하고 MN 해석을 요구하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device)로서의

상례(convention)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결부되는 MN 수식어(하위값 표현 'a little,' '보통')로서의 상위값 긍정('매우', 'very') 해석으로의 극적인 선회는 화용론적이지만 의미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sup>9</sup>

#### 4. 사건관련전위(ERP) 실험 연구

##### 4.1 상위언어적 부정에 의해 허가되는 수식어의 한-중-일어의 특징

**4.1.1 한국어의 '보통/여간'의 경우.** 이제 MN이 어떻게 통사상으로도 특별한가 또는 유표적인가를 보기 위해 한국어의 부정을 보기로 하자. MN의 허가를 받는 강제 있는 정도 수식어 '보통'과 '여간'은 (28a)와 같이 외부 부정, (28b)와 같이 장형 부정, 또는 (28c)와 같이 계사 부정을 요한다. 물론 이들은 (28d)와 같이 긍정 평서문에 나타날 수 없다.<sup>3)</sup>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 단형 부정은 전형적으로 DN을 이루므로 MN의 허가를 받는 강제 있는 정도 수식어 '보통'이나 '여간'이 단형 부정문 안에 들어 있으면 결과는 비적형(anomalous)이다.

- (28) a. 미아가 **보통** 예쁜 것이 아니야 [외부 부정] ~> Mia is exceedingly pretty.  
 b. 미아가 **보통/여간** 예쁘지 않아. [장형 부정]<sup>10</sup>  
 c. 미아가 **보통/여간**(-이) 아니-(이)-야. [계사 부정]~> Mia is extraordinary.  
 d. \*미아가 **보통/여간** 예뻐. (부정 없이)  
 (29) \*미아가 **보통** 안 예뻐. Cf. 미아가 전혀[NPI] 안 예뻐.

반면, 수사의문문과의 관계로 보면 **보통/여간**이 (30a)와 같은 장형-외부-단형 부정 관계없이 부정 수사 의문문에는 나타날 수 없는 한편, (30b)와 같은 긍정 수사 의문문에는 나타날 수 있다. 또 한편, 단형 부정으로 시작한 경우 외에는 MN이 **부정** 수사 의문문을 이룰 수 있다. MN을 쓰는 정도 평가자인 화자의 강조적 긍정 단언성(assertability)이 부정을 유지한 상태의 의문문과 충돌이 일어나 (30a)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 수사 의문문이 긍정에의 편향(bias)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MN의 외부(30c)/장형(30d)/계사(30e) 부정 서술문의 서술 어미를 대체하는 축약의 (장형) 부정 수사 의문문 어미 '!잖니?'가 붙어 적형이나, MN 부사가 단형 부정문 속에 있을 때에는 (30f)처럼 이마져 차단됨을 본다. 만일 Carston and Noh가 단형부정도 손색 없이 MN을 이룬다고 주장한다면 이 평행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위의 (28c)와 여기 서로 차이는 (30e,f)에서 계사 부정도 MN으로 작용함을 뚜렷이 보게 된다.

- (30) a. \*그 여자 **보통/여간** 예쁘지 않니(/예쁜 게 아니니?/보통(/여간) 아니니?/안 예쁘니?)

<sup>9</sup> 예컨대, Steedman(2000)은 영어의 대조화제 B accent(우리말 대조화제 '-는'에 해당)를 어휘부에 단어 자격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상, 대조화제 '-는'과 영어의 B accent는 의미 기능이 지극히 유사하다(Lee 2006).

<sup>10</sup> 어떠한 외부, 장형, 계사 상위부정문도 (30a)처럼 의문문 어미가 붙으면 비적형이 되고, 수사 의문도 되지 않는다.

- b. 그 여자 (어디) 보통/여간 예쁘니?
- c. 그 여자 보통/여간 예쁜 게 아니잖니?
- d. 그 여자 보통/여간 예쁘지 않잖니?
- e. 그 여자 보통/여간 아니잖니? 11
- f. \*그 여자 보통/여간 안 예쁘잖니?

**4.1.2 중국어의 MN 不是와 'Ibande'의 경우.** 중국어에서 부정사 bu(不)'not'는 부정할 주술어가 바로 뒤에 나오면 記述的 否定(DN)으로 해석되고 아래 (31)에서처럼 그 뒤에 시정(是正)절이 따를 수 없다. 그러나 bu(不) 바로 뒤에 초점 표지인 是가 와서 bu shi(不是)가 되면 (32)에서 보듯이 바로 두 절의 MN구문을 이루며 是正절에 shi를 취해(필자의 CF 완성) 온전한 응집성을 보인다. (32) MN 절의 부정은 CF상의 외부(또는 분열문) 부정으로 볼 수 있다. (33)도 마찬가지로 MN 구문으로서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후속절 앞에 시정의 correction-but (or corrective S/N (sino/sondern) 'but' er-shi가 긴축적으로 생략적으로 와 앞 절과 한 문장을 이룬다. 각국어에서 S/N 성격의 접속사가 MN을 위해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느것이 아니라' 일어의 (ja) naku, 베트남어의 ma 등이 그러하다(Lee 2010).

- (31) a. Ta bu piaoliang. #Ta feichang piaoliang.  
3sg NEG be beautiful 3sg be extremely beautiful  
'She is not beautiful. #She is extraordinarily beautiful.'
- b. Ta bu rang wo xuexi. #Ta bi wo xuexi.  
3sg NEG let 1sg study 3sg force 1sg study  
'She didn't let me go. #She forced me to go.'
- (32) a. Ta **bu shi** piaoliang. Ta **shi** feichang piaoliang.  
3sg NEG FOC beautiful 3sg FOC extremely beautiful
- b. Ta **bu shi** rang wo xuexi. Ta **shi** bi wo xuexi.<sup>12</sup>  
3sg NEG FOC let 1sg study 3sg FOC force 1sg study
- (33) a. Wo **bu shi** xihuan ta, er-shi ai ta.  
I not like her but love her  
'I don't LIKECF her but LOVECF her.'
- b. Ta **bu shi** gao, er-shi pang. [진리치에 관여하는 내용도 이처럼 MN일 수]  
3sg NEG FOC tall SN fat

11 (28c)와 더불어, 계사 부정에는 아니-이처럼 부정 뒤에 계사를 두고 여기에 다른 형용사/동사 어간 뒤에도 마찬가지로 장형 부정형 -지 않(=않)을 붙이고 거기에 다시 의문문 어미 -니를 붙여 부정 수사 의문문을 얻는다. 즉 상위부정문의 서술문 어미만 '-잖니'로 바뀐다.

12 Wible et al(2000)은 다음과 같은 deontic modal이 들어가는 MN 예를 통사론적으로 설명하려 하나, 양상의 척도상 약한 '허락'을 다른 양상인 hui('able')로 부정하고 '강제'(deontic necessity)를 할'능력이 있다'고 강한 값을 내세우는 의미론적인 설명이 타당하다.

Ta **bu hui** rang wo qu. Ta **hui** bi wo qu.  
3sg NEG able let 1sg go 3sg able force1sg go

‘(S)he is not tall but fat.’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YIBANde(一般的) ‘commonly’는 MN이 허가하는 정도 부사로서 (34)에서와 같이 MN 문장에 자유로이 나와 척도상 더 높은 정도의 상태를 전달한다. 이 부사는 (34b)와 같이 긍정문에 허용되지 않고, (35)와 같이 bu만의 DN 구문에 못 나타난다.<sup>13</sup> 이 점에서 YIBANde는 한국어 ‘여간’과 비슷하게 MN에 의해서만 허가되는 부사다.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fuTSUU‘보통’도 (36)처럼 전형적으로 MN구문에 쓰이는 하나 긍정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34) a. Ta **bu shi** YIBANde piaoliang.  
she MN commonly beautiful  
‘She is NOT COMMONLY beautiful.’~> (S)he is very beautiful.  
b. \*Ta YIBANde piyaoliang.  
(35) \*Ta bu YIBANde piyaoliang .  
(s)he NEG commonly beautiful

**4.1.3 일본어의 fuTSUU MN의 경우.** 일본어의 fuTSUU는 한국어의 ‘보통’과 매우 유사하다. 다음 (36)에서와 같이 전형적으로 MN에 쓰이는 정도 부사이면서 강제 없이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 (각주 14 참조).

- (36) a. fuTSUU-no kawaisa ja-nai [--- ja naku honto-no kawaisa-da]  
common -of prettiness MN [ MN S/N much-of prettiness]  
‘(She) is not COMMONLY pretty.’~> She is very pretty. [(보통의 미가) 아니라 굉장한 미여]  
b. fuTSUU janai [fuTSUU ja naku sugoi]  
common (Adj) MN [보통이 아니라 대단해]  
‘Not COMMON.’(EXTRAORDINARY)

**4.1.4 메아리적 표준 정도의 정도 의미 이론과 범언어적 고찰.** 범언어적으로, ds가 술어의 메아리적 표준 정도(echoic standard degree)라면 그것의 상위언어적으로 부정된 발화는 같은 술어의 더 높은 정도 d > ds를 생성한다. 인식자(epistemic agent)는 단순문에서는 화자지만, 내포된 보고문이나 복합 태도 문장일 때는 주어일 수도 있다. 한국어의 ‘여간’이나 (Cho et al 2002 참조) 중국어의 YIBANde는 MN이 허가하는 수식어로 굳어졌지만, 한국어의 ‘보통(으로)’나 일본어의 fuTSUU는 강제 없이는 긍정문에도 나타나 ‘보통 표준 정도’를 의미할 수 있고(그것이 다소 낮추 보는 감정상 부정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sup>14</sup> 또 강제

<sup>13</sup> ‘bu yibande’의 연결체가 복경대 코퍼스에 한건도 나오지 않으며, 주위 12명의 중국어 모국어 사용자가 이 연결체가 비적형이라고 말해주었다. yibande가 긍정문에 쓰이지 못한다는 임소정교수(pc)의 제보에서 암시를 받고, 조사해 얻은 소중한 결과다.

<sup>14</sup> 긍정문에서 계사와 같이 정도 표현으로 쓰이는 한-일어의 예를 보자.

a. 보통-이야 (Kor)      b. FuTSUU -desu (Jpn)

이들은 특별한 강세가 없고, 계사 부정문에 쓰일 때에는 상황이 달라져 MN의 정도 표현으로서 강세를 띄는



없는 '보통'이 한국어에서 양화사적으로 'usually'를 별도로 가리킬 수 있다. 영어에는 한-중-일어에서의 MN에 의해 허가되는 메아리적인 표준 정도 수식어(예: 'commonly'에 맞는 짝이 없고, 중간 이하 정도 수식어) 'a LITTLE'/'a BIT'가 강세를 가지고 MN 부정과 이중적으로 상승하는 꼭대기를 둘 갖는 유효적인 억양으로 MN 허가를 받고 항상 척도상 더 높은 정도를 전달함을 이미 밝혔다.

이러한 운율적 유효성과 특별한 통사적 환경하에 MN에 의해 허가되는 정도 수식어는 DN 경우와 대립되게 범언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머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ERP 실험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 4.2 상위언어적 부정 부사류에 대한 사건관련전위(ERP) 실험

자극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의 ERP(Event-Related Potential, 사건관련 전위)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 1**에서는 써놓은 문장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실험이었고, **실험 2**에서는 읽어 녹음한 문장들을 청각적으로 들려주는 실험이었다. MN 부사류가 정상적으로 외부 부정이나 장형 부정에 나타나지 않고 (전형적으로 DN에 쓰이는) 단형 부정문에 나타나 비적형이 될 때 뇌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했다. 자연히 MN 부사류가 든 적형의 MN 문장들과 MN 부사류가 든 비적형의 단형 부정문을 대조시켜 채우개(filler)들과 섞어 제시했다.

**4.2.1 ERP 실험 1: 문자 시각 자료 실험.** 붉은 색으로 억양 표시된 MN 부사류가 든 적형의 외부 부정 문장 vs. 붉은 색으로 억양 표시된 MN 부사류가 든 비적형의 단형 부정 문장. 10개의 적형문(보통 문장 5개, 여간 문장 5개), 10개의 비적형문(보통 문장 5개, 여간 문장 5개), 80개의 채우개, 2X2 counterbalanced로 각자에게 제시. 문장별로 5개의 어절로 끊어 어절 단위로 제시했다.

요즘 | 아이들은 | [보통] | 큰 게 | 아니야

Fig 6. 적형: MN에 의해 허가되는 [보통]이 외부 부정문 안에 있다.

저 영화 | 어제 | [보통] | 안 | 즐겼어

Fig 7. 비적형: MN에 의해 허가되는 [보통]이 단형 부정문 안에 있다.

### 절차, EEG 측정 및 분석

- (a) 피험자들에게 자극 제시 연체(소프트웨어) E-Prime 2.0으로 글로 쓴 문장을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 (b) Ag/AgCl electrodes와 사용. VEOG와 HEOG 이용(with online filtering at 0.1Hz-70Hz, sampling rate at 500Hz, and the impedance of electrodes under 10 k $\Omega$ ).

---

게 보통이나, MN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른 MN에서보다는 덜 두드러질 수 있다.

- (c) 각 자극에 대한 개별 피험자들의 뇌파 반응을 측정기 위해 각 자극에 대한 파형들이 각 자극이 제시된 시간 단위들로 나누어졌다. 실험 1 자료 Set A에서 모든 전극들로부터의 나뉜 파형들의 평균들을 측정한 결과 각각 유의미한 P-값을 얻었다. 모든 피험자들의 ERP 반응의 평균을 목표로 하여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ERP 반응들에서 N400의 최종 grand average curve를 얻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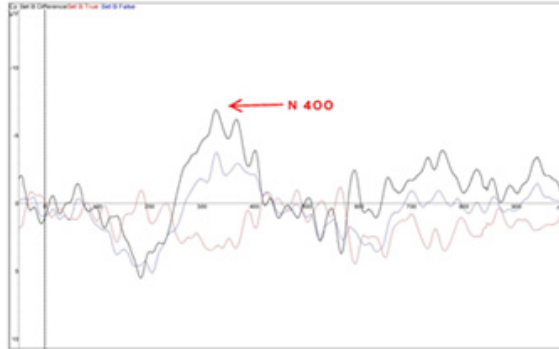


Fig 8. Cz 위치에서의 N400: 피험자 4명의 뇌파 곡선의 전체 평균.  
N400은 전형적으로 의미 관련 이탈성을 보인다.

### 문자 시각 자료에 관한 실험 1의 논의

**실험 1**의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네 피험자 전원의 뇌파 곡선의 grand average로서의 Cz 위치의 N400 결과는, N400의 최초 발견자를 포함한 필진이 30여년간의 N400 연구를 종합 검토한 Kutas et al(2011)에 따르면, 의미와 관련된 비적형성이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낸다. MN의 허가를 받는 부사류(붉은 색)가 든 적형의 외부 MN 문장과 MN 부사류(붉은 색)가 든 비적형의 단형 부정 문장을 대조시켜 얻은 자료 Set A 실험의 결과다. Set A 실험에서 피험자의 눈이 외부 부정 조건하에 붉은 색 표시를 한 MN 정도 부사에 도달하면 MN 부사(나 보문절 어미)의 수식을 받을 형용사나 부사를, 뒤 이어 외부 부정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단형 부정 조건하에서는 눈이 같은 붉은 색 표시가 된 MN 정도 부사에 도달하면 MN 부사를 허가할 수 있는 꼭 같은 외부 부정(또는 장형 부정)을 기대할 것이나 실제로는 네 번째 칸에서 단형 부정을 맞게 되고 뒤이어 수식받게 될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된다. 그러면 피험자는 MN 부사와 단형 부정 사이에서 충돌을 느끼게 될 것이다. MN 부사는 DN에 의해 허가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MN과 DN이 최소한 화용론적 의미에 있어서라도 구별돼 쓰임을 뜻한다.

강세 억양 대신 붉은 색 표시를 하고 피험자들에게 붉은 색 표시된 **[보통]**과 같은 표현은 강세가 있는 표현으로 읽으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래도 위의 문자로 된 시각자료에서 MN의 외부 부정 문장 안에 든 붉은

색의 강제 있는 [보통]은 문장의 자연스러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단형 부정 문장 안에 든 붉은 색의 강제 있는 [보통]은 문장의 부적형성(anomaly)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강제 없는 '보통'은 usually라는 양화적 빈도의 의미를 가져 단형부정에 잘 쓰이기 때문에 붉은 색의 강제 있는 [보통]을 인식시키는 것은 MN의 외부 부정 적형문과 대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N400 효과의 실험 결과가 이를 입증했다. 다만, 실패한 맨 처음의 실험을 소개하자면, 붉은 색 표시된 [보통] 표현으로 강제가 있어 적형문이 되는 외부 부정 문장과 그냥 까만 색으로 '보통'을 놓고 비강제로 읽으라고 지시한 그래서 비강제 때문에 비적형문이 되는 외부 부정 문장을 대조시킨 것 즉 요즘 | 아이들은 | [보통] | 예쁜 게 | 아니야 데 요즘 | 아이들은 | 보통 | 예쁜 게 | 아니야의 실험결과는 무참히도 아무 것도 안 나온 것이었다. 이는 이 문맥에서 비강제로 읽는 것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문맥상 MN이 자연스러워 똑같은 붉은 색 표시된 [보통]처럼 동정적으로 해석한 결과 대조가 제대로 안 돼 실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강제를 색으로 구별시킨 것이 이 실패의 경우처럼 바람직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다소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실험 1의 경우도 있다. 대조쌍들에서 붉은 색을 다 제거해도 비슷한 성공의 효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4.2.2 ERP 실험 2: 말로 된 녹음 문장 속의 MN 부사류에 대한 청각 자료 ERP 분석.

##### <방법>

##### 피험자

서울대 학부생 15명(여: 4, 남: 11) 평균 연령 23.53세(범위: 20부터 34). 각각 2만 5천원의현금 지불 대가. 한국어 표준어 사용자(경기-서울 거주자로 어려서 2년 이상 이 지역 떠나 살지 않은 자), 오른 손 잡이, 약시 아닌 자, 신경질환 경력 없는 자. 이 조건들은 인터넷 공모 때 미리 공지되었고 이 조건들은 랩에서의 필기 실험 프로토콜로 지켜졌다.

##### 자극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와 달리, 써놓은 문장들을 보는 대신, 녹음된 듣기 문장들을 듣고 반응하게 했다. 符合(적형) 조건으로는 외부 부정 문장 속에 강제 있는 MN 부사가 제대로 들어 있는 것이고, 비부합(비적형) 조건으로는 단형 부정 문장 속에 같은 강제 있는 MN 부사가 잘못 들어 있는 것으로 대립되어 제시되었다. 대립은 실험 1에서와 같으나 차이는 실험 1에서는 강제 있는 MN 부사를 붉은 색으로 표시해 보였으나 실험 2에서는 강제 있는 MN 부사를 자연스럽게 읽어 녹음한 것을 들려준 것이고, 어절별로 끊어 다섯 칸을 만들어 차례로 제시한 실험 1에서와 달리 실험 2에서는 뇌파 측정 시발점(onset)을 적형 조건과 비적형 조건 양쪽 모두 외부 부정사 '아니'와 단형 부정사 '안'으로 고정시켰다.

적형(符合) 조건: 30개의 외부 부정 문장  
(15개는 보통, 15개는 여간 준비)

비적형(非符合) 조건: 30개의 단형 부정 문장  
(15개는 보통, 15개는 여간 준비)

도합 60개의 실험 문장이 준비되고 80개의 채우개(filler) 문장이 준비돼 총 140개의 문장이 등장했다. MN 부사들은 자연스럽게 강세를 띤 상태로 들려주되, 각 피험자는 이 모든 유형을 듣게 되나 한 유형에 각각의 문장이 무작위적으로 할당되었다.

적형 조건 문장들과 비적형 조건 문장들은 실험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절차, EEG 측정 및 분석>

피험자들이 실험 진행의 전체 시간 중에 주의가 집중되게 하기 위해 문장 하나가 끝날 때마다 방금 들은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M, 부자연스러우면 Z를 누르도록 했다. 이 행동 테스트에서 11번 내지 30번 정반대(M과 Z를 뒤바꾸어 누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의 잘못된 반응을 보인 피험자 6명(+캡이 안 씌워진 것으로 판단된 피험자 1명)과 6번보다 작은 수의 오류를 낸 나머지 집단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 잘못된 행동의 피험자 7명은 분석에서 우선 제거했다. 또 마지막 순간 E-Prime programming error (비적형문 한 쌍을 나란히 놓는)가 발견돼 관련된 피험자를 제거한 결과 분석에 남은 피험자는 애석하게도 도합 7명이 되었다.

실험 2에서 부적합(비적형) 조건과 적합(적형) 조건 사이에 통계상 유의 있는 차이들이 뇌 중앙 전극 자리(특히 C4) 5개(C4, CP2, CP5, P4, P7)에서 N400 효과를 나타내면서 탐지되었다(C4에  $t(6)=-2.586$ ,  $p=.041$ ; CP2에  $t(6)=-2.799$ ,  $p=.031$ ; CP5에  $t(6)=-2.902$ ,  $p=.027$ ; P4에  $t(6)=-2.616$ ,  $p=.040$ ; P7에  $t(6)=-2.565$ ,  $p=.043$ ). 또한 각 전극 자리에서의 부적합, 적합 조건에 대한 반복 측정 ANOVA 부적합-적합 조건에 대해 유의 있는 효과를 보인다( $F(1, 192)=83.928$ ,  $p=.000$ ), 그러나 전반적인 전극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F(31, 192)=.557$ ,  $p=.972$ ). 'hemispheres (2) x ROIs (electrodes) x manipulation'으로의 반복 측정 설계가 바람직하나 전체 raw data를 가지고 차후에 더 정교하게 작업기로 한다. 실험 1에서의 Cz(center) 위치와는 약간 차이가 난다.<sup>15</sup>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실험 2에서 듣기 문장의 청각 반응으로 N400 효과가 양 반구의 중앙에 가까운 5개의 전극 위치(C4 포함)에서 추출되었다. MN 정도 부사가 부합되는 MN 신호의 외부 부정의 문장에 놓였느냐 아니면 비부합 조건의 DN 신호의 단형 부정 문장에 놓였느냐의 대립 조건으로 들려준 문장에 반응케 한 것이다. 실험 1에서 N400 효과가 추출된 C4 위치와 약간 차이거나 이는 써놓은 문장 자료와 들려준 문장 자료 차이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여하간 실험 2에서도 N400 효과를 내며 뚜렷하게 부정성(negativity)을 보인 것은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와 관련된 비적형성/이탈성(meaning-related anomalies)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 틀림없다. N400은 P600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P600은 수, 성 일치, 성분 이동, 격, 또한 주어-동사 간 경어 일치 등과 관련된 통사상의 이탈성이 반영된 것이다(이 구별에 대해 Osterthout et al (1999) 참조, 그는 의미론적/화용론적 이탈(선택제한 등)에 대한 ERP 뇌 반응은 N400 component (neural marker)에서의 amplitude의 큰 증가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본질적으로 다른 통사적 이탈성들의 집합에 대한 뇌 반응은 큰 진폭의 positive shift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80년 N400 발견 이후의ERP N400과 의미에 대한 총 개관은 Kutas et al (2011) 참고.

<sup>15</sup> 잡음(noise) 효과를 줄이기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졌다: ERP 신호가 30Hz로 다운 샘플되고 +200uv ones (30-40 out of 115~117)는 제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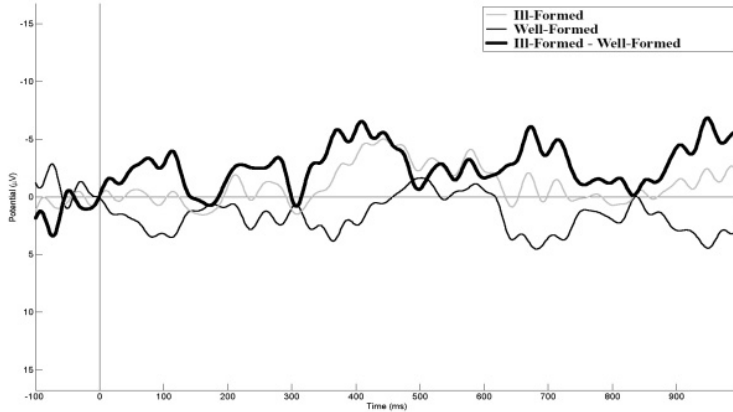


Fig 9. C4에 나타난 N400 효과.

#### 4.3 MN 부사류의 ERP에 대한 일반 논의

세 가지 문장 유형의 유표성 계층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37) MN 문장 > DN 문장 > 긍정 문장<sup>16</sup>

MN은 DN과 달리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와 그 밖의 언어에서 대조 초점(CF)을 가져 음성적, 통사적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보통/여간**이 긍정문에 못 나타나기 때문에(28d), 한국 언어학에서 이를 NPI와 구별짓지 않고 제약을 달리 하거나 강도 차이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Cho et al 2002; Whitman et al 2004). 그러나 이들 **보통/여간**은 단형 부정문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과 (37)과 같이 NPI와 같이 나타날 수 없다는 큰 차이가 있다. 장형 부정은 NPI나 MN 부사를 허가하나 따로만 가능하다. (8a)의 NPI와 (28b)의 MN 부사가 장형 부정에 의해 다 각각 허가된다. 그러나 같은 부정이 한 문장 안에서 NPI와 MN 부사를 한꺼번에 허가하지는 못 한다. 살펴보자.<sup>17</sup>

<sup>16</sup> 긍정문과 부정문을 차원을 달리해 먼저 가르고 그 다음 DN과 MN의 차이를 다룰 수도 있다.

<sup>17</sup> 심사자 한분이 제시한 다음 두 예문에서 NPI와 공기하지 않으니 '철수밖에'는 MN 허가 요소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단형부정에 나타나니 NPI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NPI와의 공기불가가 (1)에서는 MN 수식어의 충분조건이 못 되고, 이 문장이 나쁜 이유는 우리말에서는 일본어에서와 달리 예외구(exception phrase)가 NPI로 충분히 문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1)도 '아무도'가 뒤따르면 괜찮다. 같은 뜻의 (3)의 철수 외에'는 NPI와 무관함을 볼 수 있다.

(1) ?\*철수밖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2) 철수밖에 안 갔어. (3) 철수 외에 다 갔어.

## (38) ?\*아무 여자-도 보통/여간 예쁘지 않아

MN은 DN과 달리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와 그 밖의 (모든) 언어에서 대조 초점((CF)을 기초로 하고 이는 담화에서 쟁점 질문(QUD)으로서의 선택 질문(alternative question)에 의존함을 앞서 보였다. 영어처럼 운율에 많이 의존해 구별되는 경우와 한국어처럼 운율과 통사적 구성이 함께 상례화되어 구별되는 유형론적인 차이도 보였다.

MN과 DN의 구별되는 기능에 대해, 주로 의미상의 영향권 중의성을 근거로 한 의미론적 중의성 입장이 있음을 보았으나, 이 입장을 Horn 측도, 맥락-주도적(연관성 이론)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의미론적 단일성을 주창하되, Horn의 화용론적 중의성은 약한 술어가 척도상의 강한 술어를 부인하는(즉 상한, upper bound의) 함축을 취소하는 데 크게 의존하면서 부정 의미 단일성을 유지하되 MN과 DN 두 용법 사이에 머물고자 한다. 필자는 영어의 운율상 MN 용법으로 굳어진 *NOT A LITTLE*, 한국어의 *보통*, 그리고 일본어의 *fuTSUU*는 상례화된 의미를 그리고 *여간*과 *YIBANde(Chn)*의 거의 어휘화된 MN 용법은 MN과 연관된 최소화 화용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의미로 인해 단형 부정문 속의 MN 부사가 통사상 이상이 없어 보임에도 적형문과의 대비에서 N400 효과를 내고 결국 의미와 관련된 이탈성에 근거한다는 해석을 불가피하게 한다. 반면, 맥락-주도의 Carston and Noh(1996)는 화용론적으로도 ‘중의성’은 없고 별도의 MN 의미/용법은 없으며 척도상의 함축도 개입된 화용론적 확충에 의해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a or b*의 문자 그대로의 형태가 *a and b*를 배제하는 것은 포함적(inclusive)(‘literal’)에서 제외적(exclusive)으로의 맥락 확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당연값으로(by default)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N에 의한 ‘not a or b’가 ‘not a and b’=‘neither a nor b’가 됨을 보자. 여기서 이점 ‘a or b’에서 *a and b*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를 부정하기 위해 DN 아닌 MN을 필요로 함에 유의해야 한다. 더 강한 값이 아니라는 척도상의 함축을 배제하려는 유표적인 조치이고 이 때 운율상으로도 *or*에 강세가 간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더불어 더욱 경험적, 실험적 증거도 필요로 하며 편향된 실험만으로도 안 될 것이다. 조건절 완결(conditional perfection)로의 응용가능성 등도 있으나, 간격 확대 전의 미명시(underspecification)도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어와 기타 억양 등 운율에 기반한 MN언어들은 MN vs. DN 용법/중의성이 (26), (27)의 MN 부정~MN 부사 억양에서처럼 굳어진 운율 구별로 이루어진다. 이 MN 절 구조가 굳어지면 후속 시정 절이 따르지 않아도 더 높은 정도의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된다.

과거의 기술적 부정 관련 실험에 개입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을 가진 모순된 쌍들은 종종 즉각적인 N400효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당연한 기대에 맞는 앞선 적당한 언어적 맥락을 필요로 했다(Staab et al 2008). 이와는 달리 MN과 DN의 구별은 QUD 등의 맥락의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MN을 요구하는 MN의 유표적인 운율적 또는 상례화된/어휘적/또는 구조적 특질과 필수적으로 전달되는 함축(또는 후행 시정 절)으로 인해 반드시 맥락-의존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화용론적 의미 이탈성이 N400을 끌어낸다는 필자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실험 예를 보고한다. Sakai(2013)의 일본어 경어 체계 처리에 관한 ERP 연구에서 다음을 밝히고 있다: 소년은 “Kato-sama”라는 경칭으로 부르며, 이는 맥락과 부합되지 않아 그 소년

을 “Kato”라고 부를 때와 대립되어 N400을 유발한다. 왜 ‘의미’냐? 이는 Lee(1973)에서 의미 상대에 대한 경어가 “I HONOR you” ((HONOR<sub>x</sub>, y (STATE x, y (P))) [x=the speaker, y=the hearer])라는 의미를 전달함을 Potts et al(2004)에 30년 앞서 밝힌 바 있다. 진리조건적이 아니지만 명제를 구성하여 다른 층위의 의미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주어-동사 경어일치가 깨졌을 때 통사론적인 P600을 유발한 결과와 극적으로 대조된다. 비슷하게 “damn Kaplan”이라 할 때 damn이라는 감정 표출적(expressive) 의미 “I hate Kaplan”이 진리조건적이 아니고 대상이 변이적이지만, 상례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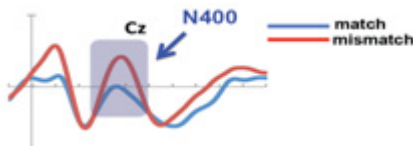


Fig 10. 비부합 조건이 더 큰 N400을 유발했다. Sakai(2013)

Noh et al(2013)은 MN에 관한 귀한 심리언어학적 안구운동(eye-tracking)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후행 해명절에서의 처리시간이 MN과 DN 사이에 (의의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DN으로 먼저 해석되고 뒷 문장과 “의미론적 모순(semantic contradiction)이 있을 때에만 MN으로 재해석 된다”는 Burton-Roberts의 의미론 입장을 반박하고 맥락-주도 입장을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동원된 “의미성(semanticity)”(acceptability인 듯) 시험 예들의 MN, DN 구별이 그리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영어에서 두 절로 된 MN 구성은 운율적으로 유효적이고 후행 해명절 앞에 양보적 But/but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합된 사용 조건이 맞으면, 진리조건적 함의(miserable entails ~happy) 경우조차 MN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Horn의 정의에 ‘whatever’가 근거에 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39)가 모순이 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ut) 조건을 더하여 되풀이해 본다.<sup>18</sup>

(39) I’m not HAPPY; (\*but) I’m MISERABLE

이러한 예는 Noh et al이 쓰고 있는 ‘왕대박’vs. ‘퐁비박산’ ‘break into fragments’과 같이 특히 감정 표출어(expressive)의 짝에 해당되어 MN 허가 구조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두 감정 표출어 어느 쪽도 상위언어적으로 부정될 수 있겠다. 피험자들은 무의미성의(‘non-sensible’) MN들을 ‘빠른 효과’로 빨리 건너 뛰었을 수 있고(실제로 이들의 의미성 시험에서 MN의 평균 의미성은 DN 것보다 의의 있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미성 있는 MN들을 DN 것들보다 느린 효과로 읽었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조건들 간에 ‘o 차이’로 낙

<sup>18</sup> 첫 번째 예는 다음 안 단형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순을 일으킨다.

(1) 유나는 돈을 안 벌었어; 쓸어 모았어.

착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DN도 MN과 마찬가지로 양보적 'but'의 '-지만'/'하지만'/'그런데'의 접속사 없이 동일해 예시했기 때문에 후행절 연결이 종종 부자연스러웠을 것이다. Noh et al 논문의 한 심사자가 추정했다는 바와 같이 이 실험은 맥락논자보다 오히려 '의미' 접근 방법을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나, 물론 필자는 Burton-Roberts 식의 의미론적 중의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MN-허가는 외부부정에서 최적이고 장형 부정에서는 이보다 덜 적합하다. 장형 부정은 MN도 허가할 수 있지만, 당연히 DN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대립시켜 놓은 것으로 의도된 MN 대체형들이 외부부정에서보다 장형부정에서 더 쉽게 비의미적(non-sensible)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형부정에서는 비의미적이 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 4. 맺는 말

두 유형의 수식어 즉 MN에 의해서만 허가되는 것들과 DN에 의해 허가되는 것들을 구별해 보았다. 전자는 MN이 허가하는 정도 부사류로서 운율적으로, 어휘적으로, 통사적으로 제약받으면서 (역설적인) 시정(是正)을 전한다. 후자는 부정극어로서 부정을 강화한 하고 그 DN을 유지한다. 이 구별은 Russell(1905)과 Karttunen et al(1979) 등의 의미론적 중의성을 떠나 우리가 하나의 논리적 부정을 가정하더라도 이미 두 다른 기능과 용법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맥락에 의한 화용론적 확대를 주장하는 Sperber et al(1986), Carston(1988, 1998)의 이론과 화용론적 중의성을 주장하는 Horn(1985, 1989) 등의 이론을 어떻게 비교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논쟁에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가능한 경험적, 실험적 증거를 누구나 갈망하게 되었다.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보자. 만일 강세 있는 MN 정도 부사 '보통/여간'이 문장의 단형 부정(전형적으로 DN 해석을 받는다)과 같이 나타난다면 그 부사는 MN이 없어 MN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그 문장은 비적형문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리 된다. 그러나 이 이탈은 의미-기반인가 구조-기반인가? MN을 요구하는 부사가 구조적으로 단형 부정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적형/이탈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MN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최초의 ERP 실험을 시행했다.<sup>19</sup>

**실험 1(pilot)**에서는 문자로 된 두 대립 조건의 문장 쌍들을 (강세 부사를 붉은 색으로 표시해) 제시했다. 피험자 4명 모두의 평균을 겨냥해 중앙 부위인 Cz에 N400 효과의 ERP 반응을 나타내는 최종 전체 평균 곡선을 얻었다. **실험 2**에는 당초 피험자 15명이 참여했으나 noise가 커 행동시험상 오류를 낸 피험자 분을 제거하고 7명 분이 분석되었다. 적형 조건에서 외부 부정 문장 30개(보통/여간 반반), 비적형 조건에서 단형 부정 문장 30개(보통/여간 반반) 그리고 채우개(filler) 문장 80개(도합 140개)가 모두 미리 읽어 녹음된 청각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 말로 된 문장 듣기 실험에서 측정시발점(onset)에서 400ms 가까운 범위에 N400 효과가 C4를 포함한 중앙에 가까운 전극 5 군데에서 나타났다. 700ms 부근에서 의의 있는 negativity signal도 탐지되었다. 이는 **실험 1**에서 관찰된 전형적인 N400 효과와 약간 차이가 나나, 통사구조상의 이탈을 보여주는 P600과 같은 아무런 곡선도 나타나지 않았다.

<sup>19</sup> Lyn Frazier교수가 Lee(2016)의 ERP 실험을 보고 MN에 대한 ERP 실험을 여지껏 본 일이 없다고 알려주었다(2015 e-mail pc).



즉 통사구조상의 이탈과는 무관함을 확인해주는 결과다.

N400에 대한 해석은 최초 발견자 Kutas 등의 통찰로는 여하간 의미상의 이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화용론적/맥락적인 나아가 비언어적인 현상에서의 비응집성 (incoherence)의 N400을 의미상의 이탈로 연관시키는 일에는 담화에 대한 좀더 형식의미론적/형식화용론적인 탐구와 더불어 실험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좀더 실험적 자료와 분석이 요구되지만, N400 효과가 MN 정도 부사 관련 대립조건하에 일어났고 이 실험분석이 타당하다면 이는 관련 이탈성/비적형성이 설사 화용론적이라 하더라도 의미와 관련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짓는다. 상례화되는(conventionalized) 의미가 기대되는 언어적 맥락을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는 맥락주의적인 비중의성 주장보다 화용론적인 중의성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는 MN 허가의 정도 수석이 관련된 비적형성에 대한 뇌파 반응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내딛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으나 자그마하게 희망의 빛을 보인 소중한 결과라고 본다.

#### <References>

- 김용균. 2015. 한국어 특수부정 연구. 상하이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이정민. 1978. '알다'라는 말의 분석. 마음 1: 60-65, 유심회.
- 이정민. 2010. 두 가지 부정 및 부정극성과 다른 상위언어적 부정의 부사어 고찰. 언어 35-3: 817-836.
- Breheny, R., Katsos, N., Williams, J. 2006. Are scalar implicatures generated by default? *Cognition* 100.3: 434-463.
- Burton-Roberts, Noël, 1989. On Horn' dilemma: presupposition and negation. *Journal of Linguistics* 25: 95-125.
- Carston, Robyn. 1996. Metalinguistic negation and echoic use. *Journal of Pragmatics* 25: 309-330.
- Carston, R. and Noh, E.-J. 1996. A truth-functional account of metalinguistic negation, with evidence from Korean. *Language Sciences* 18: 485-504.
- Cho, S. and Lee, H. 2002. Syntactic and Pragmatic Properties of NPI *Yekan* in Korean. In N. Akatsuka et al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0. CSLI.
- Choi, Yoonhee, and Chungmin Lee In press. Expletive negation and polarity alternatives. C. Lee, F. Kiefer and M. Krifka (eds.) *Contrastiveness in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Springer, Heidelberg.
- Ducrot, O. 1972. *Dire et ne pas dire*. Hermann.
- Forslid, Erik, and N. Wikén. 2015. Automatic irony- and sarcasm detection in Social media, UPTeC F15 045.
- Horn, L.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 121-74.
- Israel, Michael. 1996. Polarity Sensitivity as Lexical Semantics. *Linguistics & Philosophy* 19: 619-666.
- Kuno, S. and J. Whitman. 2004. Licensing of multiple negative polarity items. In *Studies in*

- Korean Syntax and Semantics*. Seoul: Pagijong.
- Kutas, Marta Kutas and Kara D. Federmeier. 2011. Thirty Years and Counting: Finding Meaning in the N400 Component of the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ERP)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14.1-27.
- Larrivee, Pierre and Chungmin Lee(eds). 2016.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Perspectiv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series vol 1. Springer, Heidelberg.
-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in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Indian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Lee, Chungmin. 1993. Frozen expressions and semantic representation. *Language Research* 29: 301-326.
- Lee, Chungmin. 1999. Contrastive Topic - A Locus of the Interface, in Ken Turner (ed.).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1), 317-342, Elsevier.
- Lee, Chungmin. 2000. Topic, Contrastive Topic and Focus: What' on our mind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2, 21-38.
- Lee, Chungmin. 2003.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in Bill McClure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12: 352-364. CSLI, Stanford.
- Lee, Chungmin. 2006. Contrastive Topic/Focus and polarity in discourse, *Where Semantics Meets Pragmatics* (K. von Heusinger and K. Turner (eds)), CRiSPI 15, 381-420, Elsevier.
- Lee, Chungmin. 2010. Information structure in PA/SN or Descriptive/Metalinguistic Negation: with reference to Scalar Implicatures, in Shu, Dingfang and Ken Turner (eds.) *Contrasting Meaning in Languages of the East and West*. 33-73. Berne: Peter Lang.
- Lee, Chungmin. 2016. Metalinguistically negated vs. descriptically negated adverbials: ERP and other evidence. Larrivee, P. and C. Lee, (eds.)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Series] Vol 1. Springer.
- Lee, Chungmin. In Prep. Wh-indefinites as PPIs and wh-indefinites plus -to 'even' as NPIs in Korean and other languages. *Linguistics* (Special Issue: Positive Polarity: Between Data and Theories (ed. by G. Iordăchioaia and M. Liu).
- Lee, S. and S. J. Hong. 2016. An experimental study of Neg-Raising in Korean. In P. Larrivee and C. Lee (eds.).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Language, Cognition, and Mind series vol 1. Springer, Heidelberg.
- Lee, Young-Suk and Laurence Horn. 1994. *Any as indefinite plus even*. MS. Yale University.
- Levinson, S. 2000. *Presumptive Meaning: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MIT Press, Cambridge, MA.
- Noh, Eun-Ju, Hyeree Choo, Sungryong Koh. 2013. Processing metalinguistic negation: Evidence from eye-tracking experiments. *Journal of Pragmatics* 57: 1-18.
- Noveck, Ira and Dan Sperber. 2007. The why and how of experimental pragmatics: The case of 'calar inferences,'in Noel Roberts (ed.) *Advances in Pragmatics*, Palgrave.
- Osgood, C. and M. M Richards. 1973. From Yang and Yin to and or but. *Language* 49: 380-412.

- Osterhout, Lee and Janet Nicol. 1999. On the distinctiveness, independence, and time course of the brain responses to syntactic and semantic anomalie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4.3: 283-317.
- Potts, Chris 2010. On the negativity of negation. In David Ludz and Nan Li (eds.) *Proceedings of SALT 30*.
- Potts, C. and Shigeto Kawahara. 2004. Japanese honorifics as emotive definite descriptions, *SALT 14*.
- Raju, R. T. 1954. The principle of four-cornered negation in Indian philosophy. *Review of Metaphysics* 7: 694-713.
- Recanati, Francois. 1993. *Direct Reference: From Language to Thought*. Blackwell.
- Roberts, C. 2012. Information structure in discourse: Towards an integrated formal theory of pragmatics. *Semantics and Pragmatics* 5.6: 1-69.
- Russell, B. 1948. *Human Knowledge, its Scope and Limit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Blackwell.
- Sakai, H. 2013. Computation for Syntactic Dependency at Language Culture Interface: A View from ERP Studies on Japanese Honorific Processing. Hiroshima U. Konkuk U Talk.
- Seuren, P. 1990. Burton-Roberts presupposition and negation. *Journal of Linguistics* 26: 425-423.
- Sperber, D. D. Wilson. 2004. Relevance Theory, in G. Ward and L. Horn (eds)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607-632.
- Staab, Jenny, Thomas P. Urbach, and Marta Kutas. 2008. Negation processing in context is not (always) delayed, in Jamie Alexandre (Ed.) *Center for m Research in Language*, UCSD.
- Tien, Ye and R. Breheny. 2016. Dynamic pragmatic view of negation processing, Pierre Larrivee and Chungmin Lee (eds) *Negation and Polarity: Experimental Perspectives*, 21-43, Language, Cognition and Mind series vol 1, Springer, Heidelberg.
- Wason, P. 1961. Response to affirmative and negative binary state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2: 133-3142.
- Whitman, John and Susumo Kuno. 2004. Licensing of multiple items. *Studies in Korean Syntax and Semantics*, 207-228. Seoul: Pagijong.
- Wible, David and Eva Chen. 2000. Linguistic Limits on Metalinguistic Negation: Evidence from Mandarin and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 233-255.

접수 일자: 2015년 11월 28일

수정 일자: 2015년 12월 30일

게재 결정: 2015년 12월 30일